

스마트공장 특화형 R&D 지원

전북중기청,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현장수요형 기술개발 등 참여기업 각각 16·25일까지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제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20년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신청기간 : 16일까지) 및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신청기간 : 9~25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스마트공장 관련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신청하는 R&D로서, 제조 데이터 범용 솔루션 개발 및 생산 현장 디지털화는 물론, 데이터 처리·저장 및 자가보정·분석 후 최적값 제공 등 제조 현장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올해 신설된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분석 솔루션 없이 데이터 저장·통신·보정 및 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단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다. 1단계는 2월 26일부터 3월 16일 기간 동안 개념기술서를 신청받아 서면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 신청을 진행한다. 사업 계획서를 신청하는 2단계는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한편, 현장수요형 기술개발사업은 데

이터 저장공간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를 목표로, 기업의 제조환경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주관기관(공급기업)은 참여기업(도입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출연금은 60% 이내이며, 최대 2년간 6억원을 지원한다.

안남우 청장은 "디지털 경제시대 경

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업의 스마트화 뿐만 아니라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 기업들이 관련 R&D에 도전해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시스템 구축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혁신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각 신청 종료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n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의사사항은 전북중기청(063-210-6452) 및 중소기업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달라진 농업환경 대응”

김상남 신임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지도적 출신·병해충 전문가로 '정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오늘자로 제7대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김상남 농촌지원국장(사진)을 임명했다.

신임 김상남 원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서울대 농업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농생명대학원에서 농촌사회교육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정선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로 공직을 시작해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와 지원기획과를 거쳐 기획재정 예산담당, 대변인, 기술보급과장을 역임했다. 2017년 1월부터 농촌지원국장을 맡았다.

이번 인사는 농촌진흥청 개청 후 처음으로 지도적 출신의 연구원장이 임명된 사례로 손꼽힌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원장은 대체로 연구직이 맡아왔다. 김 원장이 농촌지도사업의 수장을 담당했던 만큼 농촌진흥청의 기초인 현장중심의 농업기술개발과 기술보급이 식량분야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의 정책홍보 성과를 이뤄냈다. 기술보급과장 재임 중에는 농작물에 영향을 주는 돌발해충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해 공동방제와 상시예찰체계 등을 구축하는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신속한 대처능력으로 병해충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능력과 농업정책에 대한 식견이 뛰어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해왔다. 농촌지원국장 재직 시 농촌지도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인력과 인력을 증원하고, 농촌지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령 제·개정, 한국의 농촌지도사업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2018 세계농촌지도포럼' 개최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

김상남 국립식량과학원장은 “달라진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신속한 기술보급을 통해 식량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한편 농촌지원국장 후임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 이천일 농업환경부장이 임명됐다. /김윤상 기자

김상남 국립식량과학원장은 “달라진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신속한 기술보급을 통해 식량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한편 농촌지원국장 후임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 이천일 농업환경부장이 임명됐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미취업 구직자 대상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추진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만 18세 이상 미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의 구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구직자 발굴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한 경우, 응시비용을 5만원 이내 실비 지원할 계획이며, 합격자에 한해 1회 추가 지원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6일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전주 '미르기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총 100건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전북 취업디딤돌'(이하 취업디딤돌) 사업과 연계하며, 취업디딤돌 참여자 신청분 40건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가능한 자격시험 종류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www.1577-0365.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063-280-4126) /김윤상 기자

전주 '미르기계', 백년소공인 선정

전북중기청, 현판식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지난 6일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전주 '미르기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소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공인의 성공모델로 널리 알리고자 진행된 이날 현판식에는 안남우 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및 각 지사, 도교육청 및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을 발송했다.

과 업체대표를 포함한 지역 소공인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와 함께 소공인들과 경영으로 등을 청취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미르기계' 김강석 대표는 20년 이상 정밀 가공 부문 벤처기업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수출 등 국내외 시장을 통한 매출 증진과 동종 소공인과 협업활성화로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김강석 대표는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에 게을리 하지 않는 기업이 되도록 매진하며 기술 분야에서 선도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신념을 밝혔다.

전북지방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우리 사회의 산업의 뿌리인 금속가공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숙련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 향상 및 소공인의 산업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보건용 마스크 공적판매 방식 변경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전북내 178개의 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공적판매 방식을 변경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바뀐 마스크 공적판매 방식은 공평한 배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이다. 고객은 1인당 1매로 구입할 수 있으며, 장시간 줄서기 방지하기 위해 오전 9시 30분에 번호표를 배부하고, 판매는 오후 2시에 한다. 가격은 1,500원 단당가로 구입할 수 있다.

건협 전북도회, 지역전문건설업 활성화 건의문 발송

도내 발주기관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지난 6일 전북도와 도내 16개 시·군, 전주·남원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및 각 지사, 도교육청 및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을 발송했다.

건의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타 지역에 비해 발주현황이 미비한 실정을 이야기하며, 동 제도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내 진행중인 대형현장과 발주예정인 국가사업에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강하게 피력했고,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건설공사로의 발주 및 계약업무담당자

의 보다 세심한 배려로 공사 업역에 따른 올바른 공종으로의 발주를 건의했다.

김태경 회장은 지역전문건설업의 업역확대 및 보호, 전문건설인의 위상고취를 위해 수시로 발주기관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지며, 건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꾸준히 업계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생진원, '꽃 선물 릴레이'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 김동수 원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졸업식·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공익 캠페인에 동참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꽃 선물 릴레이'캠페인은 지난달 19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여하며 전라북도 내 유관기관의 릴레이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4일 캠티종합기술원 노상훈 원장에게 바통을 넘겨받은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식품 기업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자는 부탁 및 감사의 뜻을 함께 전하며,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했다.

김동수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과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을 추천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로 대외여건 악화, 금융·외환시장 안정 총력”

홍남기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외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기관은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IMF 지난달 22일 세계 경제성

장을 3.3%에서 3.2%로 하향 조정하는데 이어 이달 초 OECD는 2.9%에서 2.4%로 0.5%포인트(p)나 낮췄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투자 위험 회피(fisk-off) 성향이 심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확대되는 추세”라며 “내부적으로도 소비심리의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생산,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의 어려움도 누적되고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한국의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이 늘어나 인적교류 뿐 아니라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변동성이 지

나치게 과도할 경우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위기관리 계획)에 따라 선제적이고, 신속·정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방역대응, 경제상황, 경기대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대외 경제 환경 불확실성이 줄고 글로벌 경제가 조기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글로벌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글로벌 경제 회복,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악화 예방 등을 위한 국제공조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뉴시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전주남부시장을 직접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피해 전통시장 활성화

전북은행, 전주남부시장 등 찾아 장보기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송전동 농수산물 시장과 전주남부시장을 직접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에는 임용택 은행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임직원들과 전주시농협연합회장 하현수 회장, 남부시장변영회 황상택 상무, 사회복합공동모금회 서영숙 사무처장이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선물을 고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과 임직원은 송전동 농수산물 시장과 전주남부시장을 두루 둘러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300여개를 상인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이 날 구매한 쌀, 과일 등의 식료품

과 생필품은 전주요양원과 시온유아원, 5개 주민센터로 보내져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하현수 전주시농협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힘든 시기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써주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경청하며 애환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 극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행은 6일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